

요한일서 개관

1. 개요

요한일서는 에베소 교회와 그 인근 공동체에 보낸 **목회적 권면 서신**으로, **진리와 사랑, 하나님과의 교제, 거짓 가르침 경계**를 중심으로 초기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. 복잡한 인사나 수신자 언급 없이, 마치 설교처럼 이어지는 문장들은 영적 혼란기 속 성도들에게 **빛과 생명의 본질**을 다시 붙들도록 돕습니다.

2. 저작 연대

- 대략 AD 85~95 년경,
 - 요한복음 이후,
 -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**영지주의** 사상이 확산되던 시기.
-

3. 저자

- 사도 요한,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, 요한복음과 요한서신, 요한계시록의 저자. 그는 예수님을 “태초부터 우리가 들은 바요, 눈으로 본 바요, 손으로 만진 바”라고 말하며,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증언합니다 (1:1).
-

4. 기록 목적

- 교회 내에 침투한 **거짓 교사들**(특히 영지주의자들)을 경고하고,
- 참된 신자의 **삶의 열매**를 강조하며,
- 성도들이 **영적 확신**, 곧 **영생의 확신**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(5:13).

5. 단락 구분

구분	내용
1:1-2:14	생명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, 죄와 용서
2:15-27	세상 사랑 금지, 적그리스도의 출현 경계
2:28-4:6	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시험 분별
4:7-5:12	사랑의 본질과 실천,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
5:13-21	영생의 확신, 죄에 대한 기도, 최종 권면

6. 중심 메시지

“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” (1:5)

“하나님은 사랑이시라” (4:8)

“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”
(5:13)

요한일서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:

1. 하나님은 빛이시다 → 거룩과 진리의 본질
 2.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→ 실천적 사랑의 요청
 3.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→ 확신 속의 영원한 삶
-

7. 신학적 이슈

① 영지주의의 도전

- 예수의 육체적 성육신을 부정하거나,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원론적 영지주의에 맞서 도덕적 삶과 신앙고백의 일치를 강조합니다.

② 죄와 용서

- 성도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으나(1:8-10),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를 모두 경계합니다.

③ 사랑의 실천

- 사랑은 추상적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입니다 (3:16-18).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(4:20).

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요한일서 해석

① 언약 공동체의 거룩과 사랑

- “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...” (1:6)는 구절은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. 즉, 참된 신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자여야 합니다.

② 성화와 성도의 견인

- “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...”(3:9)는 성도의 궁극적인 변화, 성화와 견인 교리와 맞물립니다. 완전함이 아니라, 죄에 대한 지속적 민감성과 회개의 삶이 핵심입니다.

③ 신자 안의 내적 증거

- 5:13 의 “영생의 확신”은 선택받은 자가 성령의 역사로 스스로 구원에 확신을 갖는 은혜입니다. 이는 개혁주의 구원론의 이중 보증(하나님의 약속 + 성령의 내적 증거)을 보여줍니다.